

(2025년 9월 21일 주일말씀) / 목장예배(모임) 샘플(예시)

▣ 사도신경

▣ 찬양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선곡: 주일 설교후 찬양으로 한다) 악보 준비 혹은 유튜브 찬양 play을 참고, 1-2번 부르며 시작한다.

▣ 부목자 시작 기도 (혹은 목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가정과 공동체 기도제목을 넣어 1-2분 분량으로 기도한다.〉

▣ 마음 열기(Telling): 한 주간의 삶으로 자기 소개

〈한 주간의 삶과 연결해서 자신을 소개 개인당 “30초 - 1분 분량”으로 인사한다.〉

▣ 말씀 읽기(Holifying): [고전 8장 8-13절] (목원들과 다함께 읽는다.)

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 해석하기(Interpreting): (목자가 주일말씀을 다시 듣고, 대지별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준비한다.)

(목자가 대지별로 간략하게 설명해도 되고, 다함께 읽은 후 적용질문을 1-2개 선택하여 나눈다.)

1.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8) 바울은 우상 재물 논쟁에서 본질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지 못하며, 지식이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 묻는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며,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 논쟁도 본질을 잃으면 돌을 던지며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로 흐르지만, 성경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본질이라 말 합니다. 성전 또한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우상화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결국 우상 재물, 안식일, 성전 문제 모두 핵심은 동일합니다.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본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살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돌아보기(Nursing) 적용 질문1 :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나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말하고 행동하나요?

2. 연약한 자를 양육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9-11) 바울은 우상 재물 문제에서 핵심은 행위의 동일성보다 양심의 상태와 신앙의 성숙도라고 가르치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똑같이 먹어도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유로 평안을 누리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양심이 상해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려 멸망에 이를 수 있기에,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당장 강하게 만들기”가 아니라, 상대의 내면과 속도를 헤아리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변화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은 끝까지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회와 공동체 돌봄에서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패와 흔들림을 겪는 **‘과정의 존재’**임을 전제해야 합니다. 약함을 꾸짖어 침묵시키기보다, 아픔을 솔직히 토로할 수 있게 품고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별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평범한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명은 완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말씀 공동체는 빨리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며 영원히 눈높이를 맞추는 공동체입니다.

-돌아보기(Nursing) 적용 질문2: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연약한 분들과 함께 울어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3.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12-13)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에서 참된 자유는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13절) 그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자유(ἐξουσία)는 단순히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함입니다. 믿음이 약한자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하기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구원입니다.

-돌아보기(Nursing) 적용 질문3: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멈추어야 할 나의 삶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살려내야 할 그 영혼을 마나고 있나요?

눌러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 살아내기(Keeping)- 목장 공동체 공감과 처방

목원분들의 돌아보기 (적용질문)을 통해 목장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구속사적으로 처방해주는 시간 당사자가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먼저 살피도록 한다.

■ 한 문장 기도: 말씀으로 자신의 나눔 적용을 담은 한 문장 기도

(목장모임 참석한 목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당 1-2문장으로 짧게 기도하고, 목자가 마무리 기도한다)

■ 목자 마침 기도 (예시)

(주일 말씀으로 목자 자신을 적용하며 기도, 목장의 긴급한 기도제목, 한빛의 기도(주보 참고))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옳은 소리는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살리는 게 본질인데 본질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큐티하라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만 외치며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얘기를 하는데 살려낼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저입니다. 본질 놓쳤으니까 죽고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 얘기하지만 다 죽어 나갑니다. 제가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도 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자리에서 내 십자가 지고 그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나 또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작은 점이 되어 구겨져서 이 땅에 오셨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잘 구겨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나를 멈출 수 있고, 기꺼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다시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가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그 연약한 자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기도문

■ 인사 및 마무리

■ 가정에서 모일 때

간식은 간단하게, / 식사도 3찬을 넘지 않도록 준비해서 나눕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도 부담스럽지 않는 정도로 다과를 준비하며, 끝나고는 전열기구 off / 정리정돈을 한다.

■ 평원담당목회자에게 보고 (부목자 / 부목자 부재시 목자 작성) / 그 주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개인별 나눔 내용 / 중보기도 제목 /

목장별 특이사항

(세례(입교)대상자, 유아세례대상자, 수험생, 경조사(출산/결혼/장례), 질병&환우(입원/수술), 전출(이사), 장기결석자, 목장모임 미참석, 목장재편성 희망자, 심방요청, 기타 문의사항) 등 목장보고서 양식을 통해 전합니다.

위급한 사항은 평원담당목회자에게 전화 & 문자로 언제든지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 목장보고서 양식 : 1층 사무실 앞 & 홈페이지 자료실